



201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열)

경희대학교

[11월 15일(토) 오후]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열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현대인들 중에는 마치 자기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없는 난파선의 조난자인 듯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사물이 변화하는 속도 그리고 그 진행의 격렬함과 에너지는 고풍(古風)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 불안이 그 사람의 맥박 속도와 시대의 높이 차이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한편, 생의 양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높이와 과거 시대의 높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다. 이 관계란 무엇일까?

어떤 시대의 인간이 단순히 지나간 시대라고 해서 과거가 항상 그의 시대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느낀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일 것이다. 스페인의 저명한 시인 호르헤 만리케가 “지나간 과거는 모두 지금보다는 우수하다.”고 느끼게 된 것을 상기해 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진실은 아니다. 모든 시대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열등하다고 느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시대가 기억에 남는 모든 과거의 시대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 역사상 각 시대는 생의 높이라는 그 불가사의한 현상을 앞에 놓고 갖가지 느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상가나 역사가가 이토록 명백하게 실체적인 사실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로서는 매우 의아하게 느껴진다.

### [나]

어떤 유럽의 아이를 중국인 가족에게 맡기면, 그 아이는 피부는 희지만 중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피부색의 형성은 생물학적인 유전이며, 언어는 인간의 두뇌를 매개로 하여 전승되는 사회적 획득물이다. 유전에 의한 진화는 몇 천 년 또는 몇 백만 년을 단위로 하여 측정되어야만 한다. 역사가 쓰이기 시작한 이래, 인간에게 중요한 생물학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획득을 통한 진보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과거세대의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데에 있다. 5,000년 전의 조상보다 현대인의 두뇌가 더 크지도 않으며 타고난 사고능력이 더 큰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인류는 그동안 여러 세대의 경험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에 합체시킴으로써 사고의 유효성을 몇 배나 증가시켜 왔다. 생물학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획득형질(獲得形質, acquired characteristics)의 전승이야말로 사회적 진보의 바로 그 기초인 것이다. 진보란 획득된 기술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사냥꾼은, 그가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하기 전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유형과는 달리, 전체적인 ‘사물의 균형’에 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 사냥꾼이 추진하는 유일한 일은 자루를 최대한 채워 줄 만큼 큰 사냥감을 ‘죽이는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사냥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숲에 사냥감이 어슬렁거리도록 그것을 다시 채워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냥꾼은, 분별없이 사냥감을 마구 잡아 없앤 탓에 숲에서 사냥감이 고갈되면, 비교적 망가지지 않아 사냥감이 우글거리는 또 다른 숲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아직은, 막연한 먼 미래에 사냥감이 남아 있는 숲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설혹 그렇더라도 급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기가 걱정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그런 먼 미래의 전망이 결국은 이번 사냥이나 다음 사냥의 결과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한 명의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나, 또는 많은 무리 중 한 무리의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깊이 생각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뒷면에 계속>

## [라]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마]

해가 뜨면 사람들은 일을 시작한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뛰어다니는 것은 개들뿐이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쿨쿨 잔다. 여러분이 잠든 이 시간에도 이웃면에서는 다수확 신품종의 벼 모종 보급을 비밀리에 착수, 내년의 수확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가면 어찌지요? 라고 물어보아야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앞선 이웃면이 돈으로 국내 최대, 국내 최고의 농지형 테마파크를 국내 최초로 건립해 버리면 어찌지요? 라고 해 봐야 그러거나 말거나다. 이곳은 무엇이 들어와도 국내 최후이며, 삶의 분주함으로 따지자면 국내 최저이며, 그 어귀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 동네 사우나탕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내 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이다. 글로 정리하고 보니 마치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 같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았을 뿐인데도 그 일주일의 전지훈련에서 우리는 점점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이해하고 있었다. 즉 어떻게 달려야 할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어떤 공을 골라야 할지, 어떤 공을 쳐야 할지를 어렵פות이 느끼게 된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어떤 코스를 만들어도 100미터가 나오지 않았다. 어립쇼, 80미터고, 70미터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브론토의 처남은 50미터 직선 코스를 정해 50미터 달리를 실시했다. 실로 50미터도 빠듯한 백사장이었다. 첫 주자는 조르바였는데 조르바는 난데없이 “이봐, 인간은 원래 바다에서 왔다는 것 아나?”라는 말을 하더니 그냥 백사장에 주저앉아 버렸다. 두 번째 주자는 브론토였는데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 기록을 냈고, 세 번째는 눈이 큰 문하생이었는데 얼마나 운동 신경이 둔한지 마치 프라모델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줄줄이 <주종죽>들의 차례였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달리던 도중에 모두 바닷속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은 안경잡이 괴소년이었는데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자세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동작으로 스타트를 한 다음, 19초의 기록으로 진지하게 골인했다.

“전력으로 똥 거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브론토의 처남이 물어보자 왜 못 믿느냐는 표정으로 안경을 까닥이며 “네.”라고 대답했다. 결국 코치도 진이 빠졌고, 또 다음 주자는 조성훈이었는데 마침 똥을 누는 중이기도 해서 50미터 달리는 호지부지되어 버렸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의 탓을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으로 돌렸다.

그렇게,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이해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였다. 비록 윤희론자가 아닐지언정 나는 그 일주일의 어느 어귀쯤에서 - 지금의 삶이 무언가 본리그를 앞두고서 행하는 일종의 전지훈련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지훈련의 어느 어귀쯤에서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인생의 숙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 숙제가 어떤 것인지 어렵פות이 느낄 수 있었고, 남아 있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뒷면에 계속>

[바]

왜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로 비틀거리는 걸까?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가? 예전에 더 나빴던가? 아니면 더 좋았던가?

티베트 고원과 고대 문화의 고장 라다크(인도 북동부)에서 보낸 16년이라는 시간은 위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극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나는 그동안 알고 있던 산업문화의 모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라다크에 오기 전, 나는 진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 공원을 가로질러 새 도로가 나거나 200년 된 교회 옆에 철제와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서거나 길모퉁이 가게 대신 현대식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현대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숨 가쁘게 계속되는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다크는 내게 미래를 향하는 길이 꼭 하나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커다란 힘과 희망을 주었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